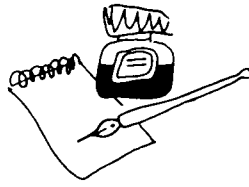


편집 후기



인간이란 얼굴을 붉히는 유일한 생명이며 동시에 그럴 이유가 있는 유일한 존재라 한다.

1년이고 10년이고 내 뒤에 있는 세월만큼의 행적들을 만날 때마다 얼굴붉히는 때가 점점 늘어난다. 어른들의 걱정 말씀처럼 나이란 거꾸로 먹는 것인지.

인생의 비결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좋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싫은 일을 어떻게 해' 하는 생각도 들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는 애기다. 부디 방재와 보험 독자, 그리고 좋은 글 주신 집필진 여러분들에게 해야만 하는 일이란 곧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들판을 뛰는 야생말처럼 신명나게 일해갈 수 있게 말이다. <鄉>

농경사회에서도 기상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았다. 하물며 산업사회를 지난 정보화시대에서의 기상정보는 더욱 값진 정보로 인정받고 있다. 가장 가변적이고 예측불허의 기상이고 보면 정확한 기상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상사 역시 기상현상과 비슷하여 처신이나 적용에 위낙 변수가 많아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가끔 모험을 걸기도 하게 되는가 보다.

온통 불확실한 정보와 예측불허의 사고, 도덕성 부재의 사건으로 범람했던 한해였으나 부디 새해에는 예측한대로, 기대하는대로, 모든 일이 순리에 맞물려 벗어났던 궤도로 다시 자리잡는, 그러한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근하신년, 모든 분들께 인사드린다. <建>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 「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분량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내용

-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 화재현장 목격담
- 시, 수필, 수기, 폰트 등 문예작품

□ 보낼 곳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 홍보부
「방재와 보험」담당자 앞

防災와保險 1989/겨울호

계간·비매품

<통권 제44호>

등록/바 - 827 호 (1973년 10월 11일)

발행/1990년 1월 1일

인쇄/1989년 12월 25일

발행겸 편집인/이상규

인쇄인/성전문화인쇄/강재수

사진식자/두람기획

발행처/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직통 780-8156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심권요강을 준수합니다.